

2022 OPEN! 21.

광야(바닥)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자아를 다룸)

[요한1서 5:1~3]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1.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3절의 기록처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구분과 경계선이 없어진다. 그 이유는 '나 라는 자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중요했는데 사랑에 빠져 보니 내 중심적 '자아'의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대체된 것이다. 바로 그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하다보면 결국 사랑을 깨는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이 바로 '자아'이다. 자아의 특성은 남을 신경쓰지 않는다.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때 부터 경계선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경계선이 결국 관계의 충돌을 만들어 낸다. 결국 충돌이 찾아지면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

2. 계명을 받은 곳 - 광야

출애굽을 생각해 보자. 출애굽전과 출애굽 후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출애굽은 구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기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이다.

구원 받기전에는 자아의 충돌이 없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구와 주장이 선명하다. 그래서 출애굽전은 내 뜻과 요구가 선명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 내 뜻의 요구와 주장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스펙'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굽의 세계관은 철저히 힘의 세계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다. 노예에게 자아는 없다. 노예는 오직 주인 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계층이기 때문이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에서 오직 강자는 한 명일 뿐이다.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거머쥔 권력과 힘과 자리를 절대 내려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들어간 지배구조의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삶은 '없으면 고달픈 것이다. 힘든 것이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홍해를 지나 완성되었다. 홍해는 어떤 곳인가? 애굽의 자아가 죽는 것이다. 애굽의 삶이 끝나는 것이다. 해결 없는 옛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홍해의 '수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만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애굽의 힘들이 함께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이 부를 모세의 노래는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자유의 노래이다.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영향력이 끝이 난 자유의 노래이다. 결국 성도들은 이 승리의 노래를 마지막 때 부르게 될 것이다.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거듭남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 삶이기 때문이다.

3. 광야는 말씀 - 말씀에 저항하는 자아를 본다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전에 없었던 갈등안에 살게 되었다. 그 전에는 내 자아의 욕구성취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자아의 새로운 갈등안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대적인 최초의 민족이기도 하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광야에서 자아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닥과 같은 광야는 내 자아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거품을 제거한다.

광야에서 꺾이기 가짜는 존재할 수 없다. 가짜와 꺾이기 그리고 모든 허상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운 순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의 실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아의 실체를 본다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

진짜 복음은 '자아'의 실체를 다루는 것이다. 자아의 실체를 다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광야는 자아를 다루는 곳이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자아가 죽는 곳이 광야이다.

'자아의 실체를 직면'

자아의 실체를 직면한 후 이제 알게 된다. '아 ~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되는 곳이 광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세워 나가는 삶을 시작한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가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급,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된다.

4.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

광야는 처절할 정도의 자아를 직면하게 한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자아이다. 그 자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음이 가장 큰 아픔이다. 그런데 그 자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서 본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사인이다. 탕자의 바닥은 드러난 자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15:26-20]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18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에게 있어서 바닥은 처참한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서 탕자는 그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19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시작된다. 그래서 바닥은 광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장소이다. 은혜를 입게 된다. 사랑을 받게 된다. 탕자의 위대한 점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만하면 사랑을 받지 않는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그릇은 크다. 담아 낼 수 있다. 바닥의 비밀이 있다. 바닥의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기초석이 됨을 명심하라.

5. 본질로 승부하라.

이번 두 주간의 기도회를 통해 철저히 내 자아의 실체를 직면하기 바란다. 바로 그 광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바닥과 같은 광야를 사랑하자.

그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